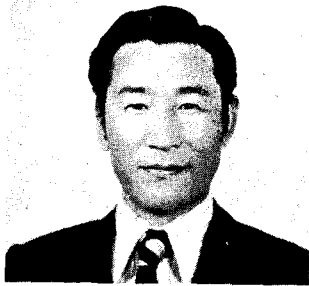


머리를 써야할 때가 왔다



誠元牧場 康 誠 元

〈韓國酪農肥育協會顧問〉

〈韓國酪農經營研究會創設會員〉

소 기르는 이들은 소 같이 일을 해왔다. 앞으로도 여전히 소같이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무리 소처럼 일해도 머리를 열심히 쓰지 않으면 지탱해 나가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간이 생태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듯 목장하기를 꿈꾸지 않는 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누구나 쉽게 목장을 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목장하는 일이 농사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일이면서 하루도 손을 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목장을 시작하면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드디어 소의 노예가 되었군”하기도 한다. 필자는 지금 농사중에서도 힘들고 어렵기가 으뜸인 소 기르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목장을 살리고 키워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절실한 얘기들을 하려는 것이다.

첫째는 자부심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즉, 소를 기르는 일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며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점에 관하여 자신이 없다면 즉 소를 기르는 일이 국가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하며 큰 이익을 갖다 주는 일이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애국이 된다는 자부심이 없다면 이 일은 집어 치워야 할 것이다. 그건 이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견뎌나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의 확립이 건물의 기초처럼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

둘째는 경영에 대한 확신이다.

어떠한 악조건에 부딪치더라도 이겨 나가겠다는 신념과 독자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을 계속하기만 하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산원가를 절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셋째는 기술에 대한 집념이다. 사양이나 작업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한없는 집념이 있다면 우리가 소와 더불어 살아 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이 상대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것이며 같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소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하지 않은가.

넷째는 경영과 기술의 국내외 정보를 되도록 많이, 되도록 빨리 획득해서 써먹는 일이다. 그것도 그대로 써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의 머리를 보태서 써 먹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 셋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한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을 “머리를 써야 할 때”라고 한 것이다. 이 과제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에 축산의 비교우위를 확립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물론 선진국들이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것은 그 나라 정부가 백년이상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축산의 발전을 돕고 밀고 협조한 흔적이 있지만, 그리

고 우리는 이 점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차피 어느 나라나 축산발전의 주체는 축산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하루 빨리 비교열위를 벗어나서 비교우위를 확립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우리 민족의 좋은 머리를 적극적으로 써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거론한 네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코자 한다.

□ 자부심

현대 인류사회를 지배하는 요소를 말한다면 대체로 다음 세가지를 말할 수 있으리라. 하나는 에너지요, 둘은 식량이요, 셋은 과학기술일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으나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세가지 인 듯 싶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이 세가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하루 하루 혈투 속에서 지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가 처한 위치는 여간 불리하지 않은 것 같다. 에너지의 경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존자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하여 쓰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쓰는 외화도 엄청나게 나가고 장래도 개선되기 보다는 부담이 더 커질 공산이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나 해외 자원개발의 참여라든지 국제유통 구조에 개입하여 유리한 도입을 꾀한다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믿으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과학기술인데 이점에 대하여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의 두뇌의 우수성으로 볼때 과학기술이 두뇌의 산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이 이룩하여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발판삼아 더 새로운 것, 더욱 높은 곳을 향하여 치달고 있을뿐만 아니라 마지막 1%는 팔지도 않으니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

할 수 있는 재원에 제약을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벌어진 거리를 따라 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혹시 과학기술 선진국이 과학기술의 핵심을 팔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서 쓴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언제나 그들의 뒤만 쫓아갈 수 밖에 없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니 어떻게 하든 걸음마에서 부터라도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니 그 부담은 매우 큰 것이다.

다음은 식량인데 식량문제는 우리국민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정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는 안타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투의 논리로 식량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자는 자세는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 다만 우리는 자동차나 스테레오만큼 식량도 중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나 과학기술의 부족이 인간의 육체를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식량이 더 중요하다고 강변할 생각 또한 없다. 우리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우리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에너지는 많은 돈을 들여 사다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과학기술면에 있어 뒤떨어진 우리나라가 수출로 무엇이든 사다 쓸 수 있게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정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농산품 수입대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농산물의 자급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현재는 농산물 수입대전이 연 30억불내외지만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얼마안가서 그 곱이 될 것은 뻔하다. 그러면 식량의 경우도 에너지처럼 자급도를 높일 가망이 없는 것일까. 연년히 수입비율은 높아지지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식량에 관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남은 만큼 생산하

기에 충분한 무진장의 임야가 있다. 이 임야는 정부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축산인의 끈기가 합쳐지기만 한다면 빛나는 보고로 변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로 막아서 논을 만들수 있는 얇은 바다가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팽창으로 줄어드는 농토를 메꾸고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단위 면적의 생산량을 증가 시킬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우수한 두뇌들을 보유하고 종자개량에 힘쓰고 있으니 그 성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농민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에 합쳐진다면 급속도로 자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비교우위나 불가정책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은 접어 두자. 그것은 어떠한 묘하고 기발한 이론으로 식량자급의 불가능성이나 불필요성을 논해도 식량자급을 향하는 소망은 꺾을 수도 꺾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자동차없이 농사지어(농율은 안나지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굶고 자동차 만들지는 못한다는 진리를 새삼스러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본인 식량을 생산하는 애국자다. 아무리 사람들이 팔봐도, 아무리 수지가 안맞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간생존의 기본인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함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자부심은 식량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제시한 자부심의 논리를 모든 소 기르는 이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다만 농업 특히 축산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정신적 기초 즉 신념이 없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악조건속에서는 지탱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런 자부심이 기초로서 단단하면 언제나 서둘 필요없이 개미처럼 하루 하루 전진할 수 있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다 이루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내 대에

다하지 못해도 서운한 마음없이 다음 대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 경영개선

이 경영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축산인은 농업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편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영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만 하다. 여물 먹이고 쇠똥 치는 이들에게 경영이란 어휘가 무슨 아랑곳인가 하는 식이다. 그러나 계속 그럴 수 만은 없는 사정이 자꾸 생겨가고 있다. 그중 한가지 농후사료와 관계되는 일들을 추리해 본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미국은 금년에 옥수수를 포함한 몇가지 곡물의 씨앗을 30%쯤 덜 뿌렸다고 한다. 그것은 지난해 곡물 재고량이 넘치는 바람에 곡물값이 너무 싸져서 농민들이 파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값올리기 위한 조치라 한다. 수입하는 곡물값이 오르는 것은 미국농민에게는 다행한 일이겠으나 우리 축산인들에게는 무척 겁나는 일이다. 어떤이는 내년 봄까지 농후사료값이 100% 오를 것이라고 하고 다른이는 80%이상 오른다고도 한다. 만일 농후사료값이 100% 오른다고 하면 우유의 생산원가중 농후사료의 원가구성비율이 50%라 할때 우유의 생산원가는 50%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후사료의 원가구성비율이 50%가 아니라 30%였다면 우유의 생산원가는 30%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 양축가가 50%였던 농후사료의 원가구성비를 값싸고 질좋은 조사료를 증산함으로써 30%로 낮추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경영합리화인 것이다. 그러나 숫자란 묘한 것이어서 이 양축가가 조사료의 증산외에 인건비를 낮추었다면 생산원가는 절하했지만 농후사료의 원가 구성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농후사료 값이 올라가면 송아지 값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유의 생산원가하고는 관계없지만 목장운영에는 어려움을 갖다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들어가면 평소에 늘 애써야 할 일이 무

엇이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빛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혼자경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 기술향상

경영향상과 기술향상은 수레의 앞바퀴와 뒤바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기술향상 없이 경영개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료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사양기술에 속하는데 동일한 값어치의 생산, 개체의 건강, 효율적인 번식, 그리고 경제수명등을 고려한 사양기술을 말하는데 이때 비용과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료는 구조적으로 허실이 없도록 완벽하게 개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건비를 절감하고 싶다면 작업동선의 길이와 굴곡횟수, 작업순서, 각종 창고나 저장장의 위치, 퇴비 처리체제, 농작물의 작부체제와 수확 또는 저장방법, 작업장의 통풍 등 환경조건, 작업도구의 적합성, 대화빈도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검토 분석하여 작업량을 감소시키고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료의 질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향상시키려면 토양분석, 지력향상방법, 파종시기와 수확시기 그도양에 맞는 적절한 비료의 성분과 시비량, 지력의 감퇴를 막기 위해 단순 윤작이 끼치는 악영향과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작부체제 등의 많은 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하고 쓴만큼 생산원가의 절감이라는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경영 및 기술정보

새로운 경영이나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필자는 사조의 칸막이의 높이, 넓이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을만한 규격을 도출하는데 4년반의 세월과 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일이 있다.

지금은 누구나 이 규격을 돈 한푼 안들이고

그대로 시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필자의 목장에 오면 가장 효과적인 사조의 규격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필자가 겪은 것과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우리가 많은 목장,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즉 수십 수백가지의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직접 이용할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자기 목장 실정에 맞도록 개량할 것은 개략해서 이용한다면 우리가 머리를 써서 얻어지는 효율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여기에 외국의 정보까지도 그때 그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결 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처럼 일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단순 노동꾼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는 머리를 써서 우리들의 값진 노동의 효율을 두배 세배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사료효율을 높인다든가 또는 인건비를 줄이는 얘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반대의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선한다면 그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자 부담을 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쓴다는 것은 빛이든 개선하는데 돈을 안 쓰거나 쓰더라도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생각을 많이하고 정보를 활용하고 머리를 쓰자는 것이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전문가가 다 해주지 않겠는가. 들일 수 있는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머지는 머리로 매워야 할 것이다. 결국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만이 이기고 살아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주소: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월정리 성원목장)